

## January 04 죄의 근원 살피기

• 마태복음 15:16-20

**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**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살피시는 분입니다. “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”(마 15:18) 한다고 말씀하십니다. 오스왈드 챔버스는 ‘깊이 뿌리박혀 잘 뽑히지 않는 죄, 너무 깊어 잘 드러나지 않는 죄’를 가리켜 ‘고정된 죄성’이라 불렀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행위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, 영적인 차원까지 낱알이 보게 하십니다.

**죄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, 피상적인 회개만 하게 됩니다.**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, 죄도 회개도 반복하게 됩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죄들을 알아차리고 잘라 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교회는 ‘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: 칠죄종’(七罪宗)에 관해 가르쳐 왔습니다. 근원이 되는 죄 7가지는 교만, 시기, 분노, 나태, 탐심, 탐식, 정욕을 가리킵니다.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, 죄인 줄 모르거나 죄지은 줄 모른 채 살게 됩니다. 경건의 훈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

**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(사 6:7).** 그리고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죄를 가리켜 성 암브로시우스는 ‘복된 죄’(felix culpa)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뜻합니다. “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”(시 139:23-24).

나는 성령으로 모든 죄를 살피며 깨닫고 있습니까?

- 1 죄를 발견하고, 회개하는 것이 복됨을 깨닫습니까?
- 2 행위뿐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 깨닫게 하시길 간구합니까?